

사도행전 16장 25-34절 말씀

기도와 찬양 & 감옥문이 열린다

-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
죄수들이 듣더라
-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
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
진지라

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다

-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
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
-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
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
-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
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
-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
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
- 31 이르되
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
-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

결과: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다

-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
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
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
-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
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